

주일의말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박병래 안토니오 신부
오천성당 주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합니다. 주님 세례를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의 '세례 때의 새로남'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1991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신학교 식당에서, 세례식과 좀 닮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 신부님들께서 신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신학생 식당에 내려와 식사를 할 때입니다. 당시 학장 신부님이 정하권 몬시뇰이셨는데 그 앞에는 우리 동기 김 아무개 신학생이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던 중에 그 아무개 신학생이 재치기를 했습니다. 학장 신부님 얼굴을 향하여 입 안에 가득 든 음식들, 그 맛 있고 아까운 것들과 국물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봤는데 정말 많은 양이 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긴장감' 이라고나 할까요? 학장 신부님은 얼굴에 쏟아진 국물과 음식을 맨 손으로 쓸어 내시면서 이리셨지요. “나는 어릴 때 세례 다 받았는데...” 그러시면서 그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렇게 재치 있는 배려로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때 한 수 배웠습니다. ‘아! 저런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넘어

가 주는 것이 세례 받은 이의 처신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화를 내고 식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적어도 한 30분 나무라실 만도 했는데... 당시 학장 신부님은 자신에게 아주 엄하셨는데도 신부님의 그런 면모를 통해 제자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자상하심을 상기하게 됩니다. “세례”란 단어에 그 날이 생각나서 적기는 하지만 혹시 신부님, 동기 신부님께 누가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가톨릭 신문을 읽으며 느낀 것입니다. “〈제 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 코리아 2010〉에서 발표된 한국인 개인 기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가톨릭 신자의 44%가 사회적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옛날 당쟁하며 정열과 시간을 허비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정치 소식, 지구 곳곳에 많아진 재난 소식, 넘쳐나는 사기와 반인륜적 범죄 소식 속에서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그나마 사랑을 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합니다. 오늘 주님 세례축일에 우리는 우리가 세례 받던 때처럼 또 새로워질 각오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나누며 살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말씀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3,16 참조
이사 42,1-4,6-7 사도 10,34-38 마태 3,13-17.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 무료진료소 운영

문화홍보실

살트르 수녀원에서 드망즈 주교님의 뜻에 따라 고아원을 설립했을 때, 수녀님들은 진료소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진료소는 원래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수녀님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도 무료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금세 널리 알려져서 신자와 비신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금방 수녀님들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평신도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수녀님들은 아무리 빠듯하고 어려워도 무료 진료를 그만두지 않았습니

다. 이 무료 진료소는 이듬해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 1931년 교구 성직자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가난한 인근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워낙 의료시설이 귀하던 때라, 이 병원에도 아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문을 연 지 1년도 채 못 되어 병동이 꽉 차 버렸습니다. 1934년, 드망즈 주교님은 수녀님들의 협조를 얻어 이 병원을 확장하고 <대구 성 요셉 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도 진료와 약이 모두 무료였습니다. 개원한 지 1년 만에 8천 명이 넘는 환자

원래 신부님들을 위해, 고아원 원아들을 위해 만든 시설이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할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진료소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원래 하려던 일이나 잘 하지.”하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고, 집안사람과 남을 구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분을 뵈을 때, “네가 그 때 돌보아 주었던 그 병자가 바로 나였다.”하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몸소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병들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형편이 나아진 요즘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주변에 많이 있고 마주치게도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선 우리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 아니길..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주님 세례 축일

입당성가

1 나는 믿나이다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네.

파견성가

480 믿음으로

영성의 향기

:: 하느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릴까

로마서 11장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로마12,1)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맏이로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다고 해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인생을 맡겨 드리고 “주님 뜻대로 처분하십시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거나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크게 이득을 보는 일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움켜쥐고 불안해하면서 어찌해 보려 하다가 오히려 일을 다 망치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안배해 주십니다. 별 보잘 것 없는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서 거룩해지고 백배로 늘어나서 되돌아오면, 나 뿐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사막에는 독수리도 살고, 벌새도 삽니다. 독수리와 벌새는 매우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어서, 아주 작은 물체도 높은 상공에서 찾아냅니다. 독수리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늘 높이 떠서 자기 먹이인 시체만 열심히 찾습니다. 하지만 벌새는 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막에 드문드문 피어있는 작은 꽃봉오리들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두 짐승이 다 자기가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자기한테 아무 뜻도 없는 물체인 꽃봉오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찾으려드는 것만 자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머리가 뛰어나도 죽은 것, 지나간 것, 썩은 것만 찾는 사람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법입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100주년 홈페이지
www.100-years.or.kr

100주년 트위터
twitter.com/renew2011

100주년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new2011

오픈: 2011년 1월 10일(월)

- 행사 / 모임 -

가톨릭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일시: 1.12(수) 14:00, 가톨릭교육원

- 성소 / 피정 -

예수의 가리마사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1.14(금)~16(일) 2박3일
장소: 양평 수녀원
문의: 010-2568-5231

- 모집 / 교육 -

요한바로2세 어린이집 원아모집
대상: 발달 지연된 장애유아 1세~7세
교육비: 전액무료
문의: 627-4006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일시: 1.12(수)~18(화)
장소: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문의: 653-7755

가톨릭문화관교육생모집(476-6211)
바이올린, 플룻, POP,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 입소자모집
대상: 18세이상 지적장애인30명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장소: 남구 내 아파트, 주택
운영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문의: 710-7030

가톨릭요셉 발견강회 강좌 '발은제2의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제31차 수도생활체험학교
일시: 1.27(목)~30(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2 이상-만32세이하 미혼 남녀
문의: 054)970-2000 / 010-8353-2323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신입생모집
대상: 세례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내용: 신·구약·신학일반(그리스도론 등)
원서접수: 2010.11.8(월)~2011.2.11(금)
문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02)745-8339(ci.catholic.ac.kr)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방법: 우편학습과 온라인학습(동영상강의)
과정: 신구약입문2년/접수: 1월25일까지
원서교부: www.paulinebible.or.kr,
바로르팔, 성바로르서원
문의: 02)944-0819~24/uus@pauline.or.kr

성필립보 생태학교 3기생모집
남녀 귀농 및 농촌생활 희망자
유기농실습 영상강의 적용채용 가능
검색창: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
문의: 033)333-8066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종교 무관)
주소: 대전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 클라라 수녀회
042)534-8876

- 안 내 -

이윤일 요한 성인과 함께 드리는 9일기도
주제: 순교의 꽃이 핀 교구100년
일시: 1.12(수)~20(목)15:00
(단, 토요일은 17: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1월 가나강좌 (1인당2만원, 당일접수)
일시: 1.16(일) 09:30~18:3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010-8853-7458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공시되는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옥련(유스티나), 김정자(올리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0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검진 (암검진은 꼭 예약해야 됨)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미사	일시	장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0일(월) 오전11시	계신주교좌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0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0일(월) 오전10시	3대리구청-일성성당

미사	일시	장소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월 10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월 10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기독교교단 월례미사	1월 11일(화) 오후2시	성모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월 13일(목) 오후2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범여네거리
엘리트 미혼 남녀의 코리아 뉴영남
결혼을 상담합니다. 알트만 호 텔
(주)코리아알트만 그랜드
박복순(오스트리아) 황금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이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금·보석·시계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대표 임종화(바실리오)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출구 대구역 방향
☎ 423-6336, 011-809-3003

송일타올
인쇄무료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가톨릭문화관 1층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대장·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학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야우구스타노)
치질·변비, 소이변비·변실금, 위·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o.com
신대우아파트 복합오거리

악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요통·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30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척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